

# 1만2000분의 1 확률 홀인원... ‘6번 아이언’에게 물어봐



▶박인비

## 홀인원 ‘행운과 실력사이’

아마추어 골퍼는 ‘평균 17.85년’ 걸려 KLPGA 올해만 16차례...프로는 달라 박인비 리우 연습서 홀인원 金 선물 국내 홀인원 첫 경품은 전자레인지

홀인원은 실력일까 아니면 운일까. 프로골퍼들이 그림 같은 샷으로 홀인원을 작렬시키는 장면을 보면 실력, 하지만 아마추어 골퍼가 치면 운처럼 보인다. 홀인원 한방으로 역대의 경품을 받은 선수부터 홀인원으로 논란이 됐던 해프닝까지. 홀인원의 모든 것을 살펴봤다.

### ●올해 국내 프로대회는 홀인원 풍년

홀인원의 확률은 1만2000분의1이라는 통계가 있다. 아마추어 골퍼들에게는 평생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행운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내 골퍼들의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 홀인원닷컴은 약 2만7000명의 골퍼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 홀인원을 기록한 골퍼들의 평균 나이는 44.5세, 평균 핸디캡은 13.88이었다. 골프를 즐겨온 기간은 평균 17.85년이나 됐고 남자가 84%, 여자가 16%였다. 쉽지 않은 기록임이 통계를 나와 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훨씬 더 많은 홀인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국내 프로골프투어에서도 홀인원이 풍년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경우 제주삼다수마스터스까지 22개 대회에서 16개가 쏟아져 지난해의 15개를 넘었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는 만성웨어 매지플라이까지 6개 대회에서 3개의 홀인원이 기

록됐다. 2개 대회 당 1개꼴로 작성된 셈이다.

KLPGA 투어에 작성된 홀인원 기록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거리는 약 144m. 홀인원의 확률이 가장 높았던 클럽은 6번 아이언이다.

### ●홀인원은 행운의 징조?

홀인원은 행운의 상징이다. 박인비(28·KB금융그룹)는 2016리우올림픽 연습라운드 때 6번 홀(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금메달까지 획득했다.

그러나 홀인원이 반드시 행운을 가져다주지는 않았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홀인원을 달성한 뒤 그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고진영(KG이데일리 레이디스오픈)이 유일하다. 장수연, 김지영, 윤선정, 김지현, 정예나, 박유나, 오지현 등은 아쉽게 우승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이 선화는 홀인원을 하고 컷 탈락하는 불운을 맞보기도 했다.

홀인원으로 논란이 됐던 적도 있다. 2012년 한화금융클래식에서 아마추어 추천선수로 대회에 나온 서연정은 2라운드 17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달성하며 2억77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KLPGA는 아마추어 골퍼는 상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고, 대한골프협회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논란 끝에 KLPGA 규정에 따라 홀인원 상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연정은 이에 앞서 스스로 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선언했다. 만약 서연정이 홀인원 상품을 받았더라면 역대 가장 고가의 홀인원 상품이 될 수 있었다.

더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ADT캡스 챔피언십에서는 한승지가 1라운드 16번홀에서 홀인원을 하면서 7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부상으로 받았다. 하지만 3라운드에서 스코어 오기로 실

격됐다. 실격됐으니 상품도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특별상(홀인원상)은 해당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만큼 경기 실력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보면 홀인원이 꼭 행운을 상징하지는 않는 것 같다.

### ●전자레인지부터 수억 원대 수입자동차까지

홀인원의 경품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2000년대 이전은 가전제품 등 생필품이 많았다. KLPGA 투어 최초의 홀인원 상품은 전자레인지였다. 현금을 준 적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조금씩 홀인원 상품이 커졌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고, 고급 손목시계도 홀인원 단골선물로 나왔다. 2000년대 이후 홀인원 상품이 다양해졌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홀인원 상품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MY퀵즈파크오픈에서는 오피스텔이 홀인원 상품으로 나왔다. 윤선정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그 밖에도 안마의자, 주방기구, 오토바이 등이 선보였다. 2009년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오픈에서는 중국의 전통주를 선수의 몸무게만큼 주기도 했다.

홀인원 상품 중 으뜸은 단연 수입차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산차가 위주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수 천만 원대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고급 수입차가 홀인원 상품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만 봐도 홀인원 한방으로 수억 원의 행운을 거머쥔 스타들이 많이 나왔다. 최유림은 2013년 MBN여자오픈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1억8000만원 상당, 서하경은 작년 BMW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역대 가장 비싼 1억 9990만원 상당, 올해는 최이진이 BMW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홀인원의 행운을 잡으며 1억 9200만원짜리 수입차를 가져갔다.

주영모 기자 na1872@donga.com

| 선수  | 대회명          | 상품         |
|-----|--------------|------------|
| 최이진 | BMW레이디스 챔피언십 | BMW750Li   |
| 오지현 | 롯데칸타타여자오픈    | K9         |
| 윤선정 | MY퀵즈파크 챔피언십  | 캠로드스타 오토바이 |
| 정예나 | MY퀵즈파크 챔피언십  | 오피스텔       |
| 김지현 | 교훈하니레이디스오픈   | 아이언세트      |
| 이선화 | 제주삼다수마스터스    | 안마의자       |

|             |                     |
|-------------|---------------------|
| 평균 나이       | 45.5세               |
| 평균 핸디캡      | 13.88               |
| 평균 구력       | 17.85년              |
| 남녀비율        | 남 84%, 여 16%        |
| 홀인원 최다 요일   | 금요일                 |
| 홀인원 최소 요일   | 일요일                 |
| 평균 거리       | 150,330야드(약 137.4m) |
| 많이 사용한 사용클럽 | 7번 아이언              |

※ 자료 출처 | 미국 홀인원닷컴(www.holeinone.com)



홀인원 상품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정예나는 7월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 골프장에서 열린 MY퀵즈파크 챔피언십에서 홀인원을 달성해 오피스텔을 부상으로 받았다. 신이 난 정예나가 경품이 그려진 입간판 앞에서 펄쩍 뛰며 좋아하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치과의사로 생활하면서 주짓수 선수로도 활동하는 이대웅 씨. 27일 열리는 ‘스파이더 인비테이션얼 브라질리언 주짓수 챔피언십 파이널’에 출전한다. 사진 | 정성욱 객원기자·랭크5 편집장

## 치과의사 출신 이대웅 “주짓수 놓지 않은 이유? 문무 겸비”

### 스포츠는 내친구

#### ‘주짓수 브라운 벨트’ 이대웅

27일 스파이더 인비테이션얼 챔피언십 출전 “주짓수 통해 건강과 열정 얻어...평생 해야죠”

주짓수 세계에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평소엔 치과의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시간을 쪼개어 주짓수에 힘을 쏟는 수련인이 있다. 유소년시절부터 격투기를 시작해 종합격투기(MMA) 대회에도 출전하고 지금은 주짓수 브라운 벨트로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는 이대웅(36, 존프랭클 관악주짓수) 씨가 바로 그다.

그는 오는 27일 열리는 ‘스파이더 인비테이션얼 브라질리언 주짓수 챔피언십 파이널(SPYDER Invitational BJJ Championship Final)’에 출전한다. 총상금 2100만원. 이대웅은 전업 주짓수 선수들 사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대웅이 격투기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부터로 유도를 전공했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그의 아버지가 강조했던 것은 ‘문무겸비’. 공부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버지께선 고등학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에서도 유도 선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저도 자연스레 강함을 추구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복싱과 헬스를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선 무에타이를 수련했죠.”

격투기에 빠져 있던 이대웅이 종합격투기(MMA)에 빠지게 된 일이 있었다. 해외 유명 MMA 사이트에 있는 MMA 선수들의 하이라이트가 그의 가슴에 불을 댕겼다. 그때부터 MMA를 동경하게 됐다.

“어느 날 인터넷을 하다가 해외 MMA 뉴스 사이트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1세대 MMA 선수들의 활약이 담긴 하이라이트 영상이 가득했죠. 그걸 보고 ‘이것이 진짜구나’라며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때부터 MMA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수련했습니다. 인터넷 동아리를 찾아가 동호인들과 수련을 하기도 했지요.”

MMA를 동경하던 이대웅에게 MMA 무대에 오를 기회가 찾아왔다. 당시 한국 단체였던 스피릿MC에서 선수를 찾겠다는 공문이 당시 이대웅이 수련하던 체육관으로 왔던 것.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대웅은 출전을 결정했다.

“+80kg으로 출전하게 됐는데요, 제 임무가 90kg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추천한 보충제를 먹게 되었는데요, 그걸 우유에 타서 먹는 바람에 몸에 받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그 체급에서 제가 가장 가벼운 선수가 되었지요.(웃

음) 결국 1회전에서 주짓수와 레슬링을 수련한 분께 패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대웅의 선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강남에서 열렸던 클럽파이트에도 3차례 출전하는 등 2승 1패의 전적을 쌓기도 했으나, 의대생 본과 4학년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

“본격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운동과는 멀어졌죠.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피릿MC에서 오퍼가 왔던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제가 패배했던 선수와의 리매치였는데, 그때 경기를 나가려면 휴학을 해야 하죠. 결국 여건상 오퍼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거절했던 것이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아있네요.”

학업에 전념한 이대웅은 치과 의사가 됐다. 의사로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무렵, 운동을 쉬다 보니 체중이 100kg까지 가는 상황이 됐다. 몸도 불편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에 결국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그때 시작한 운동이 주짓수였다. 주짓수가 익숙해질 무렵 시합에도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 좋더라고요. 시합에도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성적도 좋은 편이었죠. 10번 가운데 9번을 승리 했습니다. 그 무렵에 주먹이 운다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스피

릿MC 오퍼를 거절했던 것이 생각나 출연을 결정했죠. 여러모로 활기찬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본인의 치과를 개업하는 등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이대웅은 주짓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다만 예전처럼 주짓수를 수련할 시간이 부족에 성적은 예전만큼 좋지 않았다. 병원이 안정되고 운동시간도 확보한 지금은 체력이 나 회복력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마지막으로 이대웅에게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주짓수를 수련하는, 혹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만약 자신이 주짓수를 좋아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끈을 놓지 말라고 조언했다. 스스로가 주짓수를 통해 건강과 열정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정말 좋아한다면 방법을 찾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짓수는 평생 함께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운동입니다. 육체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테크닉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운동이죠. 꾸준히 수련한다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짓수로부터 삶의 열정과 건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열정과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성욱 객원기자·랭크5 편집장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